

PEOPLE

2025년 6월 11일 수요일



한전KDN

사랑의 열매 ‘나눔명문기업’ 가입

한전KDN이 ‘사랑의 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1억원 이상을 기부하며 ‘나눔명문기업’ 반열에 올랐다.

한전KDN은 최근 나누 본사 대회의실에서 ‘사랑의 열매 나눔명문기업’ 가입식을 갖고 공식 현판과 인증패를 수여받았다고 10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박상형 한전KDN 사장과 노동일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전남지회장 등 양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나눔명문기업’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1억원 이상 기부했거나 3년 이내 기부를 약정해 사회적 책임 경영을 실천하는 기업이다.

한전KDN 관계자는 “대한민국의 나눔 문화를 이끌어 더 나은 세상을 만들고,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지역사회 복지 발전에 앞장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승홍 기자 photo25@



광양어린이보육재단

보육사랑 100인+기부릴레이

광양시어린이보육재단은 최근 광양시청 만남실에서 ‘보육사랑 100인+기부릴레이’ 기탁식을 열고 기부금 2000만원을 전달받았다고 10일 밝혔다.

기탁식에는 정인화 광양시장을 비롯해 이광용 광양시어린이보육재단 이사장, 김희영 재단 상임이사, 기부자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참여한 기업과 단체는 △광양양교동·광양교통노조 1000만원 △한국안전관리협회 500만원 △한국생활개선광양시연합회 100만원 △광양천년동백축제위원회 100만원 △송소파인빌6차입주대표회의의 100만원 △탐치과의원 김진식 원장 200만원 등이다.

이순심 (주)광양교동 대표는 “광양교동은 지역 주민에게 안전한 교통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이번 기부금이 우리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에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광양=김귀진 기자 lkjin@gwangnam.co.kr



화순, 세계유산 배움캠프 마무리

화순군은 최근 화순 고인돌오토캠핑장에서 진행한 가족 체험 행사 ‘세계유산 배움캠프’를 마무리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캠프는 1박 2일 일정으로 총 2회에 걸쳐 운영됐으며, 초·중등생 자녀를 둔 가족 39팀이 참여해 세계유산 화순 고인돌 유적을 이해하고, 가족 간 협력과 소통을 경험하는 소중한 시간을 가졌다.

참가 가족들은 선사시대 옷을 입고 고인돌 유적지 좌표를 따라 이동하며 다양한 미션을 수행했다. 각 지점에서는 고인돌의 형태, 축조 방식, 청동검 찾기, 청동기 토기 알아보기 등 교육적 요소가 결합한 활동이 마련됐다.

화순=구영규 기자 vip3355@gwangnam.co.kr

한국언론진흥재단 찾아가는 저널리즘 특강

“생성형 AI 시대… 저널리즘 ‘신뢰·원칙’ 강조”

윤석년 광주대 대학원 특임교수, ‘AI·언론윤리’ 강의

뉴스 제작환경 변화·미래 전망도…사실 검증 등 요구

“인공지능(AI)이 심화될수록, 저널리즘의 원칙과 신뢰는 더욱 강조될 것입니다.”

윤석년 광주대 대학원 특임교수는 10일 광주 북구 중흥동 광남일보 1층 MVG 라운지에서 열린 한국언론진흥재단 ‘찾아가는 저널리즘 특강’에서 이같이 말했다.

‘AI와 언론윤리: 변화와 전망’을 주제로 진행된 이번 강의에서 윤 교수는 생성형 AI 기술의 급격한 발전이 언론계에 가져온 환경 변화와 윤리적 대응 과제에 대해 집중 조망했다.

윤 교수는 “AI는 불과 몇 년 사이 인터넷과 컴퓨터보다 빠른 속도로 지식을 축적하며 이미 뉴스 생산, 유통, 소비 전 과정에 침투하고 있다”면서 “AI는 수년 전부터 스포츠, 날씨, 증권 등 기사를 쓰고 있고, 운동선수의 동작 등을 인식해 하이라이트 영상을 제작하는 수준에 이르렀다”고 소개했다.

그는 생성형 AI 등장으로 뉴스의 다양성과 접근성이 확대될수록 기자 저널리즘의 본질은 강조된다고 역설했다.

윤 교수는 “AI는 데이터 해석에 뛰어나지만

인간의 탐사보도나 휴먼스토리 같은 감성적·맥락적 보도는 대신하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단신 기사나 보도자료 위주의 보도는 AI가 잘 처리한다”며 “기자는 발로 뛰고 전화걸어 독자가 궁금해하는 정보를 파헤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AI 기술 도입에 따른 언론 윤리의 5가지 핵심 원칙도 제시했다.

윤 교수는 AI 저널리즘의 기본 원칙으로 공정성과 투명성, 책임성, 개인정보 보호, 인간 중심성 등 다섯 가지를 꼽았다.

그는 “AI가 생산한 기사라도 반드시 기자의 사실 검증을 거쳐야 하고, AI 사용 사실과 버전은 독자에게 명확히 밝혀야 한다”며 “이는 독자의 신뢰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윤리”라고 강조했다. 윤 교수는 “AI는 학습된 데이터에 따라 편향될 수 있다. 이를 막기 위한 설명 가능성과 관리 구조가 필요하다”며 국내의 언론사들의 대응 사례도 함께 소개했다.

그는 “로이터통신은 AI 생성 기사에 복수 소스 검증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AP통신은 AI 사



10일 광남일보 본사 MVG라운지에서 열린 광남일보 2025년 제3차 한국언론진흥재단 찾아가는 저널리즘 특강에 윤석년 광주대 대학원 특임교수가 ‘AI와 언론윤리: 변화와 전망’을 주제로 강연을 하고 있다. 최기남 기자

용 사실 명시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며 “한국에서도 언론재단과 일부 신문사가 자체 윤리 가이드라인을 수립해 운영 중이다”고 설명했다.

데이터 저널리즘과 솔루션 저널리즘도 강조했다.

그는 “AI는 방대한 통계와 데이터를 빠르게 분석할 수 있어 지역별 투표 성향, 세금 체납 현황 등 공공 데이터를 기사화하는 데 강력한 도

구가 될 수 있다”며 “지역 현안을 분석하고 해결책까지 제시하는 솔루션 저널리즘은 AI 시대에 더욱 필요한 접근이다”고 말했다.

윤 교수는 “AI는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도구다”며 “기술을 비판적으로 수용하면서도 생산성, 정확성, 책임성을 갖춘 저널리즘을 구현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양홍민 기자 yhb9792@gwangnam.co.kr

광주비엔날레, 국제 예술 교류 플랫폼 강화

이탈리아·스위스·오스트리아 문화기관과 업무협약

(재)광주비엔날레가 이탈리아, 스위스, 오스트리아 각국의 주요 문화 관련 공공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며 국제미술 교류 확대를 이어가고 있다.

광주비엔날레는 10일 주한이탈리아문화원과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는 지난 5일 스위스의 프로헬베티아(Pro Helvetia), 오스트리아의 필레아스(Phileas)에 이어 이달 들어 세 번째의 업무협약 체결이다. 오늘 주한이탈리아문화원 협약식에는 미켈라 린다 마그리(Michela Linda Magri) 주한이탈리아문화원장, 지난 5일 협약식 현장에는 다그마 슈미트 타르탈리(Dagmar Schmidt Tartagli) 주한스위스 대사와 볼프강 앙거홀저(Wolfgang Angerholzer) 주한오스트리아 대사가 각각 참석하여 국가적 차원의 지지를 보냈다.

협약은 △제16회 광주비엔날레 파빌리온을 위한 기획 및 상호 지원 △유럽 주요 문화기관과의 네트워크 강화 △문화·예술·학술 교류 행사 추진 등을 골자로 한다.

주한이탈리아문화원은 문화예술 외교의 거점으로서 다양한 예술 프로그램을 통해 한국과의 문화적 접점을 확대해 왔다. 프로헬베티아(스위스)는 예술가 및 기획자의 글로벌 교류를 위한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필레아스(오스트리아)는 현대미술 중심의 국제 협업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지원하는 독립 기관으로, 동시대 예술 담론 생산에 주력하고 있다.

각 기관의 국가인 이탈리아, 스위스, 오스트리아는 매해 광주비엔날레 전시에 참여하는 자국의 작가를 꾸준히 후원해 왔으며, 2018년 광주비엔날레 파빌리온이 시작된 이래로 각국의 다양한 문화 기관이 파빌리온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탈리아는 2023년부터 두 차례, 스위스는 2021년부터 세 차례, 오스트리아는 2024년 한 차



광주비엔날레는 10일 주한이탈리아문화원과 업무협약을 맺었다. 사진 왼쪽부터 김요성 광주비엔날레 사무처장, 미켈라 린다 마그리 주한이탈리아문화원장.

레 광주비엔날레 파빌리온은 전시 및 프로그램을 선보이며 광주비엔날레와 지속적인 협력 관계를 이어오고 있다.

광주비엔날레 김요성 사무처장은 “유럽 주요 문화기관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향후 다양한 공동 프로젝트를 이뤄지기를 기대한다”며 “다양한 현대미술 담론과 실천을 광주와 연결하고 관람객에게도 풍부한 국제적 예술 경험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광주비엔날레는 지난 2월부터 몰타예술위원회, 서울대미술관, 전남대 예술대학과 차례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2026년 광주비엔날레 파빌리온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번 업무협약에 이어 올 하반기에는 프랑스·스페인·한·아세안센터 등 다양한 국가 및 문화기관과의 협약이 예정되어 있으며 예술을 매개로 국가, 문화기관 간의 연대를 강화해 나간다.

고선주 기자 rainidea@gwangnam.co.kr



광주 남구 주월2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최근 매월 기부하는 착한가게로 새롭게 참여한 2곳에 현판을 전달했다.

남구 주월2동 지사협 ‘착한가게 현판’ 전달

광주 남구 주월2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송진태)는 최근 정기적으로 어려운 이웃을 위해 매월 기부하는 착한가게로 새롭게 참여한 2곳에 현판을 전달했다.

이번에 착한가게로 참여한 2곳은 ‘광림태권도’ (관장 최두선)와 ‘종로떡집’ (대표 이혜진)으로 두 곳 모두 매월 3만원의 정기기부를 통해 지역 내 나

눔사업에 동참하게 됐다.

송진태 위원장은 “지역주민을 위해 따뜻한 마음을 나누어 주신 대표님들께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착한가게 발굴에 노력하고, 나눔의 분위기를 확산시켜 살기 좋은 주월2동을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여수, 환경의 날 기념행사…“플라스틱 오염 종식”

여수시는 최근 제30회 환경의 날을 맞아 이순신 광장에서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주제로 기념행사를 개최했다고 10일 밝혔다.

환경의 날은 1972년 유엔 주도로 제정된 이래 전세계적인 환경보호의 날로 자리 잡았으며, 국내에서는 1996년부터 기념해 올해로 30회를 맞았다.

기념식에는 정기명 시장, 백도현 여수교육지원청 교육장, 문갑태 여수시의회 부의장 등 인사와 환경단체,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후보호주권을 맞아 열린 ‘유소년 환경그림 그리기 대회’ 수상자와 환경보전 유공자에게 표창장이 수여됐다.

부대행사로는 탄소중립포인트제 홍보, 연동천에 EM출공을 던지는 시민참여 활동이 함께 진행



됐다. EM출공은 유익한 미생물과 황토를 혼합한 친환경 정화제로, 하천 수질 개선과 악취 제거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여수=송원근 기자 swg3318@gwangnam.co.kr



광주세마마을문고 길위의 인문학을 찾아서 새마마을문고광주시지부(회장 김동노)는 최근 시·구회정당과 임원진 4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의성군에 위치한 조문국박물관과 고운사를 방문했다. 사진제공=광주시세마마을회



(주)천지문화원 바자회 수익 전액 기탁 광주시 서구(구청장 김기강)는 10일 구청 로비에서 (주)천지문화원(대표 배창숙)과 함께 ‘제2회 이웃사랑&나눔 바자회’ 수익금 및 후원 물품 전달식을 가졌다. 사진제공=광주시 서구